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5월)

일시	2019. 5. 30. 목. 오후 5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윤택림, 여성구, 이나건, 이영숙, 조경선, 최선희, 형지영(총 7명) -서면 의견제시 및 위임 조숙경, 최양호(2명)	
	회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 회의 내용

- 윤택림 위원장 : -2019년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4년이 돼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나름대로 지역사회 중요한 광주 MBC와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고 한편으론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쉬움도 있다. 사장님 오셔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니깐 떠날 때는 잘 될 때 떠나야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감사드린다. 떠나는 분들, 남은 분들 지역사회 위해 열심히 잘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린다. 마지막 회의 시작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위원장님 감사하다. 위원장님 역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성구 부위원장님 특별히 감사드린다.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셨다. 부위원장님께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을 방송에 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도 사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청자위원이라는 직책이 타이틀만 달고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했다. 이런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임기를 마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연임되신 분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윤택림 위원장 : -업무보고 편성제작국부터 해달라.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5.18특집프로그램 <5.18스마티어링>을 5월 18일에 1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 5.18특집다큐멘터리 <임을 위한 하모니> 화요일 저녁 방송했다. 담양대나무축제,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녹화방송했다. 메이피스 전월선 공연을 5월 10일 행사 진행하고 6월에 전국 편성 예정이다. 연극 못생긴 당신을 녹화 방송했고, 시민소통네트워크는 나주편 4편 제작해서 업로드 했다. 6월은 제주MBC와 공동으로 제주4.3과 광주5.18을 학교 보급용 콘텐츠를 제작하자고 협의했다. 40주년 맞춰 출시 예정이다. 80인조 모스크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이 6월 22일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영원하며 문화전당에서 녹화 추진한다. 5.18 다큐영화 <임을 위한 하모니>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소나무합창단, 5.18 관계자를 모시고 상영회를 할 예정이다.
- 한신구 보도국장 : -5.18 당시 삶과 죽음의 경계해서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들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일주일 연속했다. 한빛원전 출력사고가 났는데 안전불감증에 대해 일주일 정도 보도를 했다. 광주수영대회 D-50에 맞춰서 대회 준비상황, 경기장 준비, 흥행요소 이런 부분을 중점 점검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맞춰서 <김

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유시민 이사장 특별대담을 2주 연속 편성했다. 내년 5.18 40주년 앞두고 특집다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철원, 이정현 기자가 미국, 독일 취재를 다녀왔다. 5.18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 국내에서 노력하고 외국인, 세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 5.18 40주년 특집이 될 것이다. 보도국 출입처 개편이 있었다. 기자 2명이 이동했다. 6월 계획으로는 세계수영대회가 7월 10일 개막하는데 본격적으로 중점을 뒀다 할 것 같다. 내년 총선률이 각 당마다 확정이 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중심이 될 것 같다.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심공원 확보문제와 개인의 사유재산권 문제 마지막 부분까지 보도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포털에서 지역MBC 뉴스를 소홀히 하고 스탠딩 되는 데가 많이 없어서 대구MBC와 저희가 주축이 돼서 전국 16개 MBC가 공동보조 작업 중에 있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중요 행사가 2개가 있다. 2019년 정월성동요경연대회가 광주, 전남북 초등학교 합창단 대상으로 6월 2일까지 접수해서 7월 19일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수상팀은 8월 9일에서 16일까지 중국 성도 국제합창대회에 참가한다. 제5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가 광주소재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파주출판도시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6월 2일까지 접수해서 7월 23일~25일 2박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 윤택림 위원장 : -시청자위원 의견을 들겠다.
- 이나건 위원 : -광주에서 운영하는 정책 중에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이라는 게 있다. 미취업한 청년들이 일정 기간동안 업무를 체험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실제로 인건비도 지급하고 현재 5기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7월이면 드림사업이 종료되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드림사업에 관한 뉴스가 참여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룬 적은 있는데 참여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다룬 적이 없었다. 저희가 드림사업 초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때 문제가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있다. 특이한 부분은 드림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까지 인사권이 전혀 없다는 프로세스가 이상했다. 게다가 서류상 직접고용이 아니라 시에서 고용을 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5기까지 왔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 심지어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실상 이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없다. 7월이면 끝나는데 이 사업이 모방되는 사업이 구별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뤄줬으면 한다.
- 형지영 위원 :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송 사장님 출범 이후 광주MBC 뉴스 신뢰하면서 보고 있다. 평소 즐겨 듣는 사람으로서 타 방송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역 현안 문제와 이슈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집중취재로 깊이 있게 파고들며 현장을 고발하고 이슈를 부각시키고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MBC 뉴스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있는 사실의 단순 나열 기사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좋은 뉴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취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요즘 집중기획이나 취재 발굴 보도가 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지 보도 방향이 바뀐 것인지. 보도하는 방향성에서 집중취재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보도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뉴스거리를 보

도할 것인가에서 선택과 집중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집중취재한 것에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5.18 40주년 다큐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단순 보도에서 집중취재, 더 나아가 프로그램화 할 정도로 역량이 길러진 것인지 아니면 다양성 부분으로 가기로 한 것인지 궁금함이 생겼다. 그동안 열심히 뛰면서 보도해준 집중취재 좋았다. 박수를 드리고 싶다.

- 이나건 위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년 특집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출연했는데, 참여정부에 대한 소회나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을 자세히 설명한 점 좋았다고 본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같은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 시각을 가진 패널이 나와서 논박을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장하준 교수라던가 분배론에 있어 반대진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후속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경선 위원 : -방금 이나건 위원 하신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다. 유시민 이사장과 특별 대담이었는데, 대담이라고 하면 어느 일방이 나오고 진행자가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 없이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초대했던 유시민 의견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 반박도 하고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사안에 대해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 재미있게 봤을 텐데 인터뷰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 최선희 위원 : -5월 12일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지역MBC 세 여자 기자분들이 나와서 민주화항쟁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토론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흘러간 과거의 내용이 한 세기를 두고 절반은 광복, 독립에 관한 것을 준비했다면 절반은 민주화에 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리얼리티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뤘다. 시청자 입장의 눈높이에서라면 좀 도식화시키고, 장황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간적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 줄거리를 요약정리하는 도표가 있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시작 전에 그런 준비나 요청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윤택림 위원장 : -두 위원님이 유시민 이사장 출연에 대해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다.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항상 반대쪽 논리도 있으니 항상 반대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저도 그런 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다. 고맙다.
- 최선희 위원 : -<라디오칼럼> 한 꼭지 가슴에 와닿았다. 한은미 부총장이 한 5월의 아카시아꽃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어봤다. 5.18 당시에 그런 일들이 가슴으로 와 닿게 하는 감성이 섞여 있는 칼럼이었다. 김현주 시인의 오월이라는 시를 통해 재조명해보는, 아카시아 꽃이 하얀데 왜 붉다 하는지 그리고 그때 한은미 총장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39주년이 됐는데도 절절히 생생하게 느껴짐. 시를 통해서도 민주화항쟁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라디오지만 영상적 요소를 가미케 하는 칼럼이어서 인상적이었다.
- 이나건 위원 : -개인적으로 TV조선이 예능으로 뜨리라고 상상을 못했다. 미스트롯 때문에 확대가 많이 됐다 국민의병작은 트렌드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기획이다. 시기나 내용적으로 적절했다. 그것을 증명하듯 조회 수가 높게 나왔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기존 콘텐츠를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송출했다. 좀 더 심박한 형태로 편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면이 있었다. 열씨구TV만 해도 송가인만 제목에 넣었다. 저희 회사도 마케팅 측면에서 좀 잘 뜨는 키워드를 일부러 넣기는 하지만 과

하지 않았나 했다. 보통 콘텐츠에 대해서, 웹콘텐츠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가 기존에 방송과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해본다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 적은 예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콘텐츠들은 사실상 요즘 보며 알겠지만 국민 오천만 명 중 천만 명은 유튜브를 시도해보는 것 같다. 그만큼 저예산 콘텐츠는 레드오션 시장이다. 사실상 방송사는 품위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슈퍼루키로 올라가는 콘텐츠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직업적인 스킬을 기반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은 방송사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오리지널 웰메이드 콘텐츠를 적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방향이 차별화된 포지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홈페이지를 매번 들어가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다. 모바일에서 접속을 해보니 차이가 있었다. 화면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봤을 때 화면이 짙은 회색으로 어두워지면서 아무 것도 클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다. 오늘 아침 발견하고 계속 해봤는데 가장 확실하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언제냐면 PC상에서 웹 브라우저를 최대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마우스 클릭으로 브라우저의 크기를 조절하면 작게 했을 때는 확실히 드러난다. 프로그램상에서 DIV라는 태그에 회색 값을 주고 z-index라고 레이어의 높이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 속성값을 일방적으로 높게 준 것 같다. 이 속성값을 교정을 하거나 태그를 없애주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 부분을 수정해줘야 되지 않나.

-PC상에서 홈페이지 접속한 후에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에 메뉴바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메뉴 위에 커서를 올리면 스크롤바가 갑자기 생긴다. 스크롤바가 생기면서 레이아웃이 들어진다.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만듦새가 조악한 느낌이 든다. 굉장히 사실 쉬운 거라서 제가 수정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만듦새를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콘텐츠에 마우스를 올리면 콘텐츠 레이아웃이 커지게 설계돼 있다. 일부러 의도한 것인지 모르지만 레이아웃이 커지니까 정신이 없다. 산만한 느낌이 들어서, 의도한 바라면 상관 없지만 이 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 윤택림 위원장 : -이나건 위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자세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잘 챙겨 봐주길 바란다.

○ 조경선 위원 : -저도 홈페이지 얘기하고 싶다. 요즘 인터넷 시대고 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 많으므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제 눈에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구글 배너 광고다. 크기가 크고 숫자 많다. 기본 칼라가 검정인데 광고는 흰색이다. 콘텐츠가 눈에 띄어야 하는데 현재는 배너만 눈에 띄는 경우 발생한다. 콘텐츠 중심의 사이트가 되었으면 한다. 광고매출이 많지 않다고 하면 광주MBC가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잘 소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많이 본 뉴스도 1년 전 뉴스도 튀어나온다. 세월호 이야기도 튀어나온다. 보도시점이 작년 재작년 보도들이 나온다. 많이 본 뉴스를 끌어올리는 로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광주지역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뉴스, 프로그램 놓쳤을 때 홈페이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돼서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형지영 위원 : -저도 홈페이지 부분 비슷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어차피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상황이니 준비가 필요하다. 광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와서 시청자들이 홈페이지 통해 광주MBC와 친해지기에는 불편함과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뉴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현재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첫 화면 콘텐츠를 보면 6개월 전 몇 개월 전 프로그램이 있다. 마치 처음 본 사람은 화면만 보고 요즘은 광주MBC에서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나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다. 시청자위원회 프로그램을 모니터를 해보고 싶었는데 홈페이지에서 보려고 했는데 다시 보기가 잘 안 돼서 보니까 오류 문구가 났다. 노출하는 부분에서 같은 맥락인데 노출이 지금 시간순인지 클릭 순인지 많이 보는 순인지 불분명해서 과거의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현재의 것들이 묻히는 부분이 있다.
 - 광주MBC 시청자위원으로서 4년간 활동했는데,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다 바쁘데 안 오는 이유를 대려면 백 가지고 오는 이유를 대려면 한 가지라고 했다. 시청자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애정이다. 광주MBC에 애정을 갖게 됐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도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
- 윤택림 위원장 : -여성구 위원님 마지막 임기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다.
- 여성구 부위원장 : -4년이 조금 못 됐는데 제대로 역할 했는지 되돌아본다. 견지망월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 것은 아닌지. 처음보다는 MBC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세련되어 가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그동안 4년 가까이 지냈지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MBC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저도 앞으로 MBC를 계속 보면서 다정한 MBC 생각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다.
 - <김낙곤의 시사본색>이 MBC 대표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출연자도 그렇고 주제 선정도 다른 방송사 시사프로그램과 계속 비교해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남이 없나 생각이 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밀해지고 품위 있고 깊이 있는 시사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품격에 맞는 출연자도 맞는 섭외도 하고 대표 프로그램에 맞는 섭외랄지 진행이랄지 그런 면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 이영숙 위원 : -틈틈히 모니터를 하고 보고 느꼈다. 4월에는 <테마기행 길> 나주에 다시 찾아온 봄도 재미있게 봤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정오의 희망곡> 시간대 많이 듣게 된다. 이번 달에 보니 청취자와의 만남을 진행하면서 청취자와 가까워지고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 들어서 깊이 있게 친근하다, 내가 항상 듣는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라디오 느낌이 들었다. 광주MBC에서는 항상 지역민을 생각하고 지역민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 발굴하시고 찾아서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보여주길 하는 바람 있었다.
- 조경선 위원 :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시청자위원을 하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부담이었다.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만든 걸 알기 때문에 잠깐 TV 보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제가 얘기한 부분 신경 써서 들어주시고 반영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 4년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인데 광주MBC가 가장 안 좋을 때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회복하는 시간인 것 같다. 항상 MBC가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고 넘버원 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 열심히 하겠다.

- 윤택림 위원장 : -보직간부 답변해달라.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이나건 위원 지적하신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디딤돌을 놓아주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지적한 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최선희 위원 지적한 부분들은 고맙다. 특히 시까지 친절하게 해주셔서 인상 깊었다. 깊은 안목과 시선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시고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그걸 토대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다.
- 한신구 보도국장 : -이나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제보해주셔서 다음 주 안에 이나건 위원님께 제보자로서 섭외 요청 드리도록 하겠다. 고맙다. 형지영 위원님 최근 집중취재나 발굴 보도가 줄었다는 거 인정한다. 5월의 특수성이 있어서 뉴스가 5.18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 계기성 기획이 되다 보면 집중뉴스나 발굴 뉴스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음. 5.18도 끝났고 6월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아서 출입처 개편도 됐고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김낙곤의 시사분석> 여러 위원님 지적해주셨다. 항상 제작자나 국장 부장 사장 마찬가지로 항상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출연자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출연자 부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다른 측면들도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스마트미디어사업단과 관련된 국민의병짝, 얼씨구TV에 대한 의견은 책임자가 참석을 안 해서 책임자 의견을 듣고 다음 회의 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 송일준 사장 :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은 왜 참석을 안했나.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참석 요청을 했으나 다른 업무 일정상 참석을 못했다.
- 송일준 사장 : -다음부터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도록 해달라.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알겠다. 홈페이지 개편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드웨어도 보강을 하고 서버도 개선하는 상황이다. 스마트미디어사업단이 생기면서 vod 서비스 자체도 유튜브 연동되는 부분도 있다. 개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검증과정에 있다. 이나건 위원님 지적하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화면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팝업에 집중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상단 메뉴에 스크롤 바가 뜨는 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화면이 커지는 것도 정리를 해서 하겠다.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공영방송에서 집중한다는 게 어패가 있습니다만 수익성을 창출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콘텐츠 위주로, 수익성을 고려해서 개선하겠다.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문제점이 많은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형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드웨어쪽을 보강하고 VOD 서비스하고 유튜브하고 충돌되는 것을 개선을 해서 콘텐츠 위주로 보기 편하도록 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기존 위원님들 위원 몇 명 보강을 했다. 대표적인 분이 이나건 위원인데 젊은층에 속한다. 그런 관점, 또 인터넷 전문가 다운 조언을 많이 해줘서 도움이 된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당장 취재해서 방송할 수 있는 제보도 감사드린다. 여러분들 뵈는 지가 2월부터 뵈서 1년 3개월 정도 되었다. 저도 많이 배운다. 어떨 때는 신랄하게 말씀해주셨을 때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도 든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해주신 분들이 고마운 분이다. 역할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의견을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낫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조경선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MBC 네트워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좋은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만들 때 고심해서 만들지만 중요하지 않다. 시청자들이 보는 결과물로서 방송프로그램 외에 의미가 없다. 결국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우리 방송을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감사 드린다.

- 윤택림 위원장 : -송일준 사장님, MBC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시청자위원 역할을 잘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MBC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다.

끝.